

2 종합

# 국제캠 학생 주차 정기권 총량제 유예 향후 제도 보완 후 2학기 시행 목표

서민주 기자 smj13221@khu.ac.kr

【국제】 2026-1학기 학생 주차 정기권 총량제 도입이 학생들의 반발로 유예됐다. 총무관리처 총무팀은 향후 학부 및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구성원 대표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제도 보완 후,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할 것이라 밝혔다.

총무팀은 유예 결정 배경에 대해 “총량제 시행에 관해 2월에 공지가 된 것이 구성원이 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실제로 공지 이후 학생분들의 민원을 받으면서 캠퍼스 내 체류 시간이나 여러 여건을 고려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주로 공대 주차장을 이용하는 A씨는 “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거주 환경이 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숙사 입주가 어려워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며 “학교는 학생이 등록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제한을 두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량제 논의는 기존 정기권 운영 구조의 한계로부터 비롯됐다. 장애 학우, 임산부 등과 같이 특수한 경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주차권 등록을 전면 금하고 있는 서울캠과 달리, 국제캠은 그간 학생들도 제한 없이 주차권 등록이 가능했다. (사진=이서현 기자)

우를 제외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주차권 등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서울캠과 달리, 국제캠은 그간 학생들도 별다른 제한 없이 주차권 구입 및 등록이 가능했다.

위 배경으로 국제캠 한 직원은 “지금도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 교통편이 좋지 않았을 당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학생들이 제한 없이 주차 등록이 가능

하도록 해온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하지만 정기권 등록 대수가 실제 주차 가능 대수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면서 차량 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1·2학기 학생 정기권 등록 대수 평균은 1,988대, 교직원들의 경우 1,364대로 국제캠 내 총 주차면수 1,796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총무팀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2,465대의 정기권 미구입 외부 차량이 학내에 출입했다.

총무팀은 “셔틀버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나갔다 들어오는 차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에 제한을 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한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는 유예는 교직원의 주차권 등록 추이에 비해 학생들의 주차권 등록 추이 상승폭이 가파른 점을 들었다. 총무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2학기 학생 정기 주차권 평균 등록 대수는 ▲2020년 634대 ▲2021년 759대 ▲2022년 1,218대 ▲2023년 1,687대 ▲2024년 1,816대 ▲2025년 1,988대로 2020년과 비교하면 약 세 배 수준 증가했다. 반면 교직원의 경우 ▲2020년 1,182대 ▲2021년 1,064대 ▲2022년 1,178대 ▲2023년 1,328대 ▲2024년 1,389대 ▲2025년 1,364대로 집계됐다.

인근 대학도 주차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는 1인 1대에 한해 재학·재직 기간 동안 구성원의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등록 차량 수가 실제 주차 면수의 약 1.5배 수준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시설관리팀 유희라 과장은 “해마다 학생 등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주차 구역 외 공간에 차량을 세우는 사례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총량제 도입 유예로 2026-1학기는 기존과 같이 웹사이트를 통해 총량 제한 없이 정기권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주차 업체 변경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중인 상황이다. 총무팀은 “2025-2학기 정기 주차권을 구입했던 경우 3월 14일까지 추가 주차권 구입 없이 주차 이용이 가능하다”며 “웹사이트는 3월 9일 오픈 예정이나 구축 상황에 따라 오픈 일자는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인포21 해킹 발생... 89명 정보 유출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지난 2월 12일 인포21을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학생 89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보처는 보안 강화를 위해 교외 접속 시 2차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공격은 ‘크리덴셜 스테핑(Credential Stuffing)’ 방식으로 이뤄졌다. 크리덴셜 스테핑은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복 사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다크웹 등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계정 정보를 이용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정보처는 지난 12일 오후 2시 35분경 한 학생의 신고를 통해 이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정보기획팀 최효승 주임은 “전체 공격 시도

는 373회에 달했고, 이 중 89개 계정에서 로그인이 실제로 성공했다”며 “학생의 신고로 확인된 말레이시아 IP를 포함해 로그인을 시도한 해외 IP 5개를 즉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름 ▲사진 ▲학번 ▲학과 ▲학적 상태 등 기본정보가 노출된 학생이 56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상세 정보까지 노출된 학생은 33명으로 파악됐다. 최 주임은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에 개인정보침해 신고를 한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보안장비 및 전산자원의 접근 분석과 포털, 인포21 로그인 및 액션 로그 분석을 시행했다”며 “피해 계정의 인포21 패스워드를 초기화하고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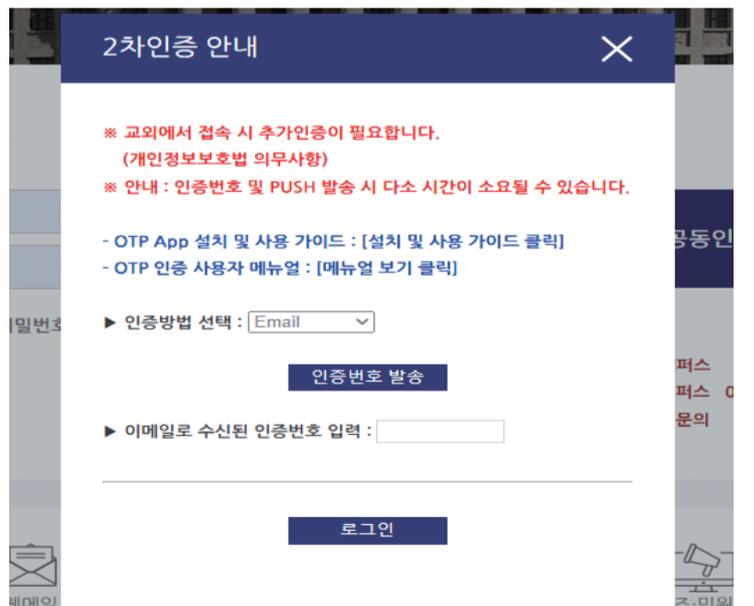
정보처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외부망에서 인포21 접속 시 2차 인증 대상을 기존 교직원에서 학생까지 확대한 상태다. 2차 인증은 ▲휴대폰 ▲이메일 ▲OTP(일회용 비밀번호) 인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ID/PW 로그인 방식에 선택한 2차 인증 방식으로 본인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는 교외에서 포털 접속 시에만 적용된다.

최 주임은 “2차 인증을 교내 접속까지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으나, 비밀번호 관리 및 2차 인증 방식 등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하여 향후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불특정 사이트에서 유출된 계정 정보를 이용한 로그인 시도는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밀번호로 변경만 해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16시 기준, 재학



인포21 학생 대상 2차 인증이 도입으로 교외에서 접속하는 학생들은 휴대폰, 이메일 또는 OTP를 통한 추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진=인포21 홈페이지 화면 캡처)

생 인포21 비밀번호 변경 비율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 사이트와 구별되는 고유 비밀번호 사용 ▲최소 6개월 주기의

비밀번호 변경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를 혼합한 8자리 이상 비밀번호 설정 ▲웹메일 비밀번호와 분리 운영 등 보안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